

갑상선 초음파



갑상선은 목의 앞쪽에서 기도를 감싸면서 위치하는 인체 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합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 대한 여러 영상검사 중 초음파가 가장 쉽고 정확하여 기본 검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에 생기는 혹에 대한 조직검사 및 비수술적 치료를 할 때 초음파검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및 치료들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왜 하게 되나요?

주로 갑상선이 겉으로 보기에 커져 있거나 목에 만져지는 것이 있는 경우 초음파검사를 하게 되지만 갑상선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있을 때도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건강 검진을 위해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검사 전후로 주의할 것이 있나요?

초음파검사 전후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고, 검사 전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음파검사는 안전한가요?

초음파검사는 산모나 신생아에게 시행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며, 검사로 인한 위해가 없습니다.

초음파검사 방법은 어떠하며, 검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검사를 받는 분의 목에 베개를 받쳐 고개가 뒤로 젖혀져 목이 잘 노출되도록 하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초음파검사 기구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고, 검사 기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피부에 젤을 바른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중 초음파 기구를 조금씩 움직이게 되며, 목을 압박하면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중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검사로 암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갑상선 내에 생긴 혹을 일반적으로 갑상선결절이라 부르는데, 초음파검사만으로 각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초음파상 보이는 소견을 기준으로 각 갑상선결절의 암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파상 파악된 위험도와 결절의 크기를 기준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암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찰열이 발행하게 되고 이 열에 의해 세포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